아마존의 역설,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기후변화: ‘생태세’를 상상하며
The Paradox of the Amazon,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and Climate Change: Imaging for ‘Ecocene’

이태혁 (부산외국어대학교)

1. 문제제기

▶ 아마존의 역설이 시작됨. 아마존이 이산화탄소의 주요 ‘배출원’으로 그 특성의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임.

▶ 열대우림으로 인간이 사회활동을 통해 내뿜는 온실가스(이산화탄소 등)를 포집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지구 허파(Lungs of the Earth)의 순기능이 붕괴가 되었으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추동하고 있음.

▶ 인간의 무분별한 자본주의 논리의 경제활동이 아마존을 파괴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아마존 기능의 역행을 초래한 것임.

▶ 아마존의 역설은 자연이 지배하던 것을 인간이 통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. 인류세(anthropocene)의 극명한 현상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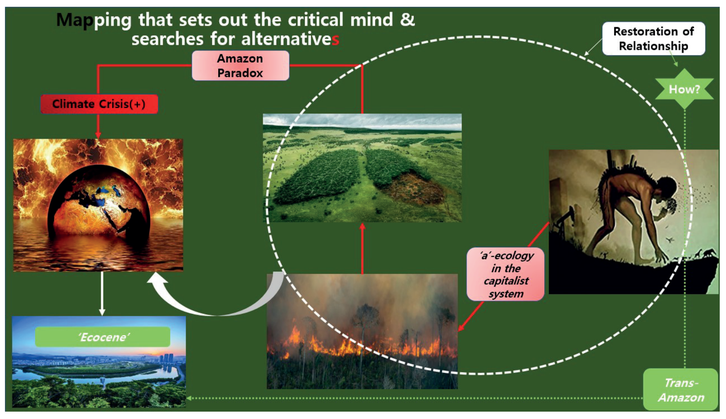
▶ 인간의 무분별한 ‘탄소발자국’으로 아마존의 순기능이 상실되며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변하고 있음. 따라서 아마존이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역기능이 초래가 된 것임.

2. 연구목적 / 방향성

▶ 인간의 행태에 기인해 초래된 ‘인류세’와 일련의 현상에 대한 대안적 사유 모색. ‘생태세(ecocene)’를 상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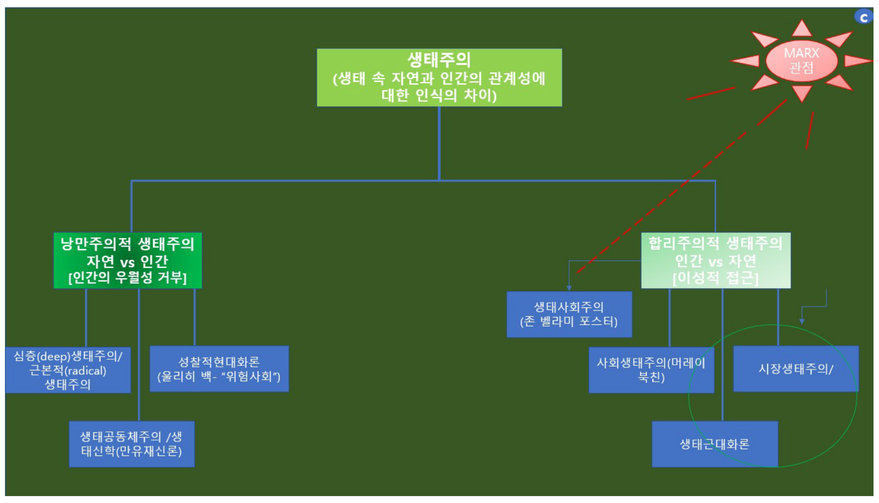
▶ 생태세의 발현은 인류세의 기원인 아마존에서 시작함. 따라서 “Saving the Amazon”은 “Saving the Planet”이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태세의 실천이 될 것임.

▶ 아마존의 자본주의‘화’ 즉 ‘몰’생태성화된 일련의 정치성을 탐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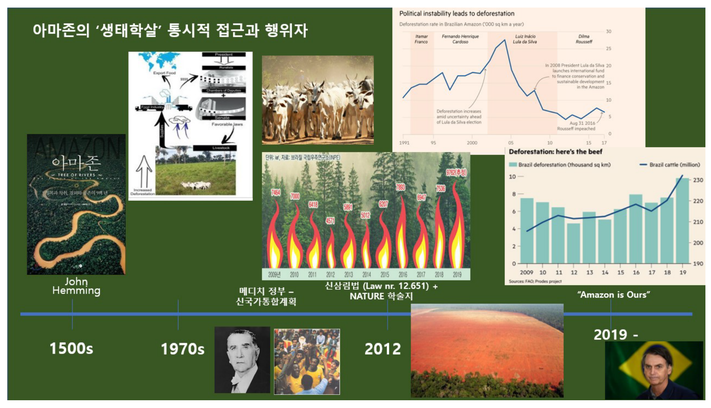


3. 연구내용

▶ 아마존이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닌 작금의 현실, 즉 아마존성이 파괴된 ‘현장’을 이해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국제개발(발전)의 주요 접근, 특히 생태주의 담론의 사유를 고찰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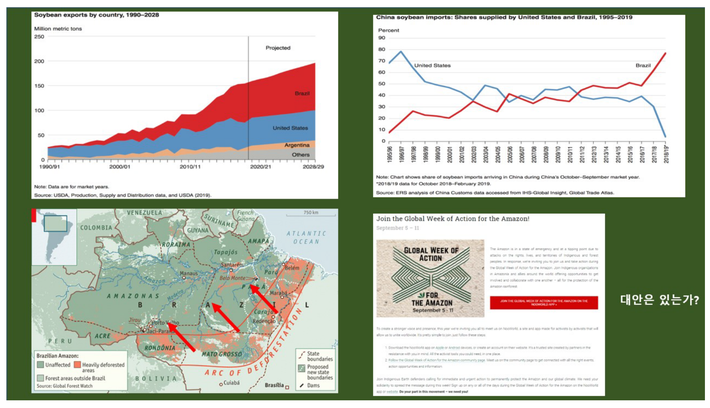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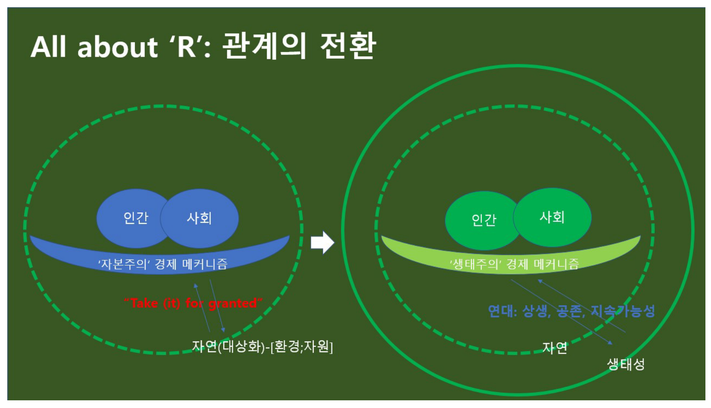




▶ 아마존의 화재는 명백히 삼림벌채(deforestation)와 연관이 있음. 즉 아마존은 죄가 없음.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충실한 인간이 문제임.

▶ 아마존 ‘생태학살’의 동인: 군부, 도로망, 소, 대두





4. 나가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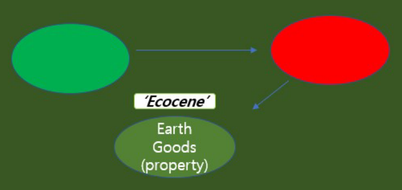
▶ “2021년은 기후변화의 중요한 해이다” (UN 구티에레스 사무총장, 8/Feb/2021). 이는 지난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기후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회의(Preparation Meeting)에서 구티에레스 UN 사무총장이 피력한 전언으로, 파리협정(Paris Agreement)의 적극적 준수를 위한 국제사회 개별 국가의 정치적 결단(political commitment)을 요청하고 있음. 즉 정치적 결정임.

▶ 나오미 클레인(Naomi Klein)이「This Changes Everything」(2014)에서 주지한 것처럼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며, 이 자본주의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은 정치가 할 수 있음.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엄중한 위기의식 속 근대문명의 대전환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됨.

▶ 트랜스 아마존 모색을 통한 ‘생태세’의 상상

트랜스 아마존 모색 (사유)

✓ 인식(상황): 아마존은 죄가 없다. 인간이 문제다.
✓ 목적: 생태지표 (ecological barometer)
✓ 정향 (orientation): 1) 기존의 아마존으로 회귀? Re-Amazon? 1500? 1970? (degrowth; post-Capitalism)
2) 환경주의적 접근 (프로메테우스적 사유): 아마존의 보존/보호; 자본주의성 cap – green capitalism (green deal); apolitical
3) 칼 폴라니(Karl Polanyi) insight (더블무브먼트)의 재사유화 → 트리플무브먼트 (triple movement): 반작용 (現 아마존 역설)의 진테제: Trans 아마존



5. 참고문헌 (일부)

강성호, 2008, 유럽중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: 라틴아메리카 ‘근대성・식민성 연구그룹’의 탈식민 전략. 역사비평, 337-357.

권기수, 2010,『브라질: 역사, 정치, 문화』(이성형 편). 까치

김원호, 2004, 중남미의 발전모델은 순환하는가?: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까지. 라틴아메리카연구, 17(4), 259-297.

Barber, C. P., Cochrane, M. A., Souza Jr, C. M., & Laurance, W. F., 2014, Roads, deforestation, and the mitigating effect of protected areas in the Amazon. Biological conservation, 177, 203-209.

Barbosa, Luiz C., 2015, Guardians of the Brazilian Amazon Rainforest. Routledge.

Boucher, D., Roquemore, S., & Fitzhugh, E., 2013, Brazil's success in reducing deforestation. Tropical Conservation Science, 6(3), 426-445.

Bunker, S. G., 1984, Modes of extraction, unequal exchange, and the progressive underdevelopment of an extreme periphery: the Brazilian Amazon, 1600-1980.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, 89(5), 1017-1064.

Buttel, F. H., 2000, Ecological modernization as social theory. Geoforum, 31(1), 57-65.

Escobar, H., 2019, Amazon fires clearly linked to deforestation, scientists say. Science. 365(6456).

Fearnside, P. M., 2005, Deforestation in Brazilian Amazonia: history, rates, and consequences. Conservation biology, 19(3), 680-688.

Foresta, R. A., 1992, Amazonia and the politics of geopolitics. Geographical Review, 128-142.

Le Tourneau, F. M., 2016, Is Brazil now in control of deforestation in the Amazon?. Cybergeo: European Journal of Geography.

Lee, Taeheok, 2017, South American Regional Integration Initiative(IIRSA): Lead Actors, Important Projects, and Dynamics.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, 36(2), 89-126.

Fukuyama, Francisco, 1992,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. Free Press.

Galeano, E., 1997, Open veins of Latin America: Five centuries of the pillage of a continent. NYU Press.

Garfield, Seth, 2013, In Search of the Amazon: Brazil, the United States, and the Nature of a Region. Duke University Press.

Hall, A. & Branford, S., 2012, Development, dams and Dilma: the saga of Belo Monte. Critical Sociology, 38(6), 851-862.

Hurrell, A., 1991, The politics of Amazonian deforestation.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, 23(1), 197-215.
Ignacy Sachs et.al.,, 2009, Brazil: A Century of Change. UNC press.